

## 오래된 차고 문 (Garage Door)

몇 년 전 오래 된 차고(Garage) 문이 또 다시 망가졌다. 지난번에는 급하게 수동(손)으로 문을 올리다가 문을 붙잡고 있던 줄이 풀리는 바람에 망가졌었다. 그 때 급히 전문가를 불러 옆에 버티고 있던 기동을 수리하여 고쳤는데 또 다시 한쪽으로 기울면서 문이 멈추고 말았던 것이다.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삐뚤어진 차고 문을 보면서 이것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번 고장 때에 일했던 수리사가 자신의 명함을 내 허락도 없이 차고 벽에 붙이고 간 것이 생각나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. 기다렸다는 듯이 20분 후 도착했는데 얼굴은 싱글벙글 이다. 나는 고장 난 문 때문에 고민하는 중인데 그 사람은 고장 난 같은 문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이다. 아무튼 구지 길게 설명 하지 않아도 그 전문가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. 나에게 문기를 “혹시 문이 지나가는 곳에 물건을 놓지 않았느냐”는 것이다. 수리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고장을 일으킨 문을 보며 이것은 저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.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며 내가 수리하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. 그리고 그 전문가는 30분 동안 문을 멀쩡히 고쳐 놓았다.

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. 나 같은 비전문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. 아깝게 거금 \$75을 내 주머니에서 그 주머니로 옮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속상했다.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고 문 수리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고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나 혼자 혼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

그러면 왜? 그렇게 되었는가?가 궁금할 것이다. 문제는 차고 문이 고장 나기 15분 전 집안을 정리하며 박스 몇 개를 차고 선반에 쌓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박스 위에 한 박스를 더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. 아무런 생각 없이 박스 하나를 가장 높은 곳에 던져 올려놓았다. 그런데 그 작은 박스가 차고 문에 걸린 것이다. 문 한 쪽이 걸려서 다른 쪽 문이 평행을 잃고 떨어져 버린 것이다. 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다. 얼마나 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던지 하나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였다.

하지만 귀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았다. 나의 앞에 작은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문 전체를 막고, 비뚤어뜨리고, 떨어뜨리듯이 나의 믿음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. 만일 그 날 박스를 올려놓았다가 깨닫고 빨리 내려놓았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.

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장애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분별력으로 내 앞에 놓인 영적 장애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회개하며 곧 옮겨 놓을 것이다.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차고 문이 고장 났듯이 평행을 잃고, 뒤틀리고, 떨어지고 말 것이다.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**“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”** (잠언 6장 27-28절)라고 하신다.

나의 부족함으로 얻은 장애물은 회개하고 치울 것이고, 환경이나 외부의 상황에서 얻은 장애물은 옆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치워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다. 미루면 넘어지기 때문이다. 나의 믿음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박스는 없는가를 돌아보고 옮기며 살아 때에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.